

韓國青少年의 性實態考察

洪文植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目 次〉

I. 緒論	2. 性에 대한 態度
II. 青少年現況	3. 性에 관한 經驗
1. 青少年 人口	IV. 結論
2. 青少年 就業	1. 性 教育 強化
III. 青少年 性實態	2. 環境改善
1. 性에 관한 知識	

I. 序論

青少年이란 어린이로부터 成人으로 移行하는 過程으로서 일반적으로 肉體的 發達과 精神的 發達을 基準으로 정의하고 있다.

人間은 누구나 肉體的 構造가 어린이다운데서부터成人다운데로 變化하는 過程을 거친다. 그 初期에는 症狀이 뚜렷하지 않지만 곧 어린이 다운데로부터 현저히 벗어나는 狀態가 되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온다. 이러한 狀態가 곧 肉體的으로 青少年期의 始作이고 그러한 變化가 繼續되면서 成熟이 完了될때까지를 肉體的 發達面에서의 青少年期라 할 수 있다.

한편 肉體的 變化를 느끼거나 비록 스스로는 確認할 수 없는 狀態라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어린이로서의 感情과는 급격하게 달라짐을 느끼기 始作하면 心理的成長過程이 始作된 것이다. 이러한 心理的 變化過程은 肉體的成長過程이 끝난 다음에도 相當期間 成人化될때까지 이어진다. 精神的側面에서는 이와같은 心理的成長過程을 青少年期라 할 수 있다.

肉體的 精神的 成熟期間은 個人差가 있으며 社會文化的 水準에 따라서도 差異가 있을 수 있다. 國民營養이나

文化水準이 높은 社會에서는 그렇지 못한데 보다 그時期가 빨리 와서 빨리 끝난 수 있으며 保守的 傳統社會에서 보다開放的인 社會에서 더 빠를 수 있다. 그러나 大體로青少年은 年齡으로 區分하는 경우가 많다.

西歐社會에서는 흔히 teenagers(13~19세)를 青少年으로 看做한다(12). 그러나 青少年의 概念은 年齡界限가絕對的인 것은 아니다. 取扱코자하는 關心事에 따라 年齡界限를 調整할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未婚群을 取扱할 때에는 흔히 20代 중반까지를 포함시키고 學生의 경우는 中·高等學生(13~18세群)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青少年期는 肉體的 精神的 未熟狀態로부터 그것이 成熟되어가는 其間이므로 精神的으로 不安定하고 性的으로 激動期다. 따라서 適應이 힘들고 脫線하거나 性犯罪를 일으킬 覆感이 높다. 날로 急變해가는 現代社會에서의 性問題는 더욱 深化될 危險이 높다.

西歐式 性開放 風潮와 더불어 大衆媒體에 의한 性情報의 범람으로 性에 대한 傳統的觀念과 儒教에 바탕을 둔 保守的 價值觀이 붕괴됨에 따라 世代間의 價值混亂에서 오는 갈등이 深化되고 더욱이 民主化 물결을 타고 國東의 空白을 틈타 一般享樂業所는勿論,青少年을 相對로 하는 만화, 비디오게임에서까지 음란의설물에 의한

不法的營業으로 頹廢風潮가 날로 盛해가고 있다. 심지어家庭에서까지 青少年子女들이 父母를 대 淫亂 비디오를接하는 例가 非一非再한 오늘의 現實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뿐만 아니라 師道의 權威는 失墜되어 가고 教師는進學指導에만 急急한 나머지 學生들의 生活指導는 거의 등한하는 잘못된 教育의 雾團氣氛 青少年들의 性的 放縱과 脫線에 對應力を 잃게 하는 要因이다. 이런 狀況에서의 青少年들은 既成世代에 대해 不信과 否定의 認識이 強해지기 쉽고 지극히 利己의이고 個人主義의 思考는 人生을 安易하게 享樂하려는 폐단을 조장하기 쉽다. 이는 곧性的發達의 不健全, 内지 脱線의 危險을 加重시키기 마련이다.

더구나 家庭形便上 教育水準이 낮은 勤勞青少年은 保護者가 없거나 父母의 監督領域으로부터 벗어날 경우 그指導의 손길이 단절되므로 性的本能과 好奇心을 승화시킬 수 있는 適應力은 더욱 弱化된다. 따라서 이들은青少年 가운데 脱線의 素地가 가장 높은 危險群(Risk group)이라 할 수 있다.

本稿는 우리나라 青少年들의 性과 關聯된 既存資料를

토대로 그 現況과 問題點을 檢討하고 可能한 對策方案을 摂索하는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 이 分野의 既存研究는 主로 中高生을 對象으로 한 學位論文이 大部分으로서 全國規模의 研究는 아직 한번도 이루어진 바 없다. 特定對象에 局限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比較的으로 體系的인 研究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 의한 「未婚勤勞女性의 人口 및 性에 대한 知識態度 調査研究」(10)와 中高等學生과 教師 및 學父母를 對象으로 한 「한국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4)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主로 이 두 研究자료를 中心으로 檢討코자 한다.

II. 青少年 現況

1. 青少年 人口

우리나라의 10~24세 青少年人口(WHO 基準<15>)는 1985 人口 및 住宅센서스 統計에 의하면 다음 表1과 같다.

表 1. 연령별 성별 청소년 인구

연도	전 연령		10~24세		
	인구	60년대비 증가율 (%)	남 자	여 자	계
1960	24,989,241		3,904,672	3,580,186	7,484,88
1966	29,159,640	16.7	4,460,039	4,136,817	8,596,856
1970	31,435,252	25.8	5,146,167	4,858,485	10,004,652
1975	34,678,972	38.8	6,084,599	5,712,769	11,797,368
1980	37,406,815	49.7	6,548,088	6,185,416	12,733,504
1985	40,419,652	61.7	6,723,612	6,313,727	13,037,339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1960年の統計를 基準으로 할 때 1985年の全體人口는 61.7퍼센트增加한데 비해 青少年人口는 74.2퍼센트增加로 全體人口增加率보다 12.5퍼센트 포인트 높게增加했다. 全體人口에 대한 青少年人口의 比率도 1960年の 3.0퍼센트에서 1985년에는 32.3퍼센트로 그 絶對數가繼續 크게增加했다.

青少年의 問題를 論하는 限 그 對象人口의 繼續的增加는 그만큼 處方的 프로그램의 投入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 青少年 就業

勞動部 統計에 의한 우리나라 就業青少年 勤勞者數*는 1986年 4月 30日現在 1,368,302名이다. 이는 全體 勤勞者 4,461,250名의 30.7퍼센트이다. 性別로는 男子 431,549名, 女子 936,753名으로 女子 勤勞青少年이 男子의 倍를 넘는다. 이는 人力需要가 가장 많은 製造業을 비롯, 여러 業種에서 女性 青少年人力의 需要가 絶對的으로 큰데서 온 結果이다. 全 產業을 통털어 男性 青少年 勤勞者가

女性보다 많은 業種은 農林水產業, 工業, 電氣業 및 建設業 뿐이다.

앞으로 青少年들의 就業, 未就業, 또는 業種間의 性問題

와 관련된 어떤 特性의 差異點을 밝힐 수 있는 廣範한 研究의 必要性이 提起된다.

表 2 산업별 청소년 근로자 현황(13세~24세)

(86. 4. 30기준)

산업별	남자	여자	개	구성비(%)
전 산업	431,549	936,753	1,368,753	100.0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2,876	1,153	4,029	0.3
광업	7,470	1,192	8,662	0.6
제조업	310,657	71,790	1,022,447	74.7
전기개스 및 수도산업	2,745	1,774	4,519	0.3
건설업	18,217	11,385	29,602	2.2
도,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32,274	71,773	104,047	7.6
운수, 창고 및 통신업	23,810	35,931	59,741	4.4
금융, 보험, 부동산 및	18,340	53,690	72,030	5.3
산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5,160	48,065	63,225	4.6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7.

*勞動部 1987勞動統計 年鑑에 提示된 統計表에 12歲 以下는 그 絶對數가 極小하여 全體青少年 就業人口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年齡區間 13歲~24歲로 하였음.

III. 青少年의 性實態

青少年은 아직 社會構成員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責任이나 社會에 대한 任務等에 理解가 不足하고 情緒的으로도 不安定한 편이다(12). 特히 性에 관한 理解는近代化過程에서 急變하는 價値體系에 隨伴하여 既成世代가 經驗했던 것보다 엄청나게開放的이다.

性에 대한 價値變化는 政治·經濟·社會·文化等 여러側面의複合的作用에 의하여 일어나겠지만 西歐化 물결에 휩쓸려健全한發達軌道로부터 離脫하여 性道德은極度로紊亂해지고 그로인한社會的 혼탁, 特히未婚青少年들의 嫦娠, 流產, 未婚母, 性暴行等의增加는 實로 우리社會에서 겪고 있는 크나큰 갈등이요시련이 아닐 수 없다. 이에具體적으로提示되고 있는資料를 통하여 우리나라과青少年들의 性과 關聯된 實態를 知識, 態度, 經驗 別로檢討코자 한다.

1. 性에 관한 知識

中高等學生을 對象으로 한 男女生殖生理에 관한 用語

의 正答選多型테스트 結果 男女學生 모두 全般的인 性의 理解度가 낮고 각 項目에 대한 理解度에 있어서 男學生과 女學生間에 두드러진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表3. 參照)

또한 이들 가운데 중학생은 35퍼센트가 키스만으로 嫦娠이 成立될 수 있다는 잘못된 性知識을 갖고 있었고 高等學生도 36퍼센트가 性交만으로 嫦娠이 可能하다는데 대해 否定 내지 모른다는 應答을 하였다. 中學生의 41퍼센트만이 嫦娠症狀의 하나로 月經이 中斷된다는 事實을 指摘했으며 人工流產이란 用語에 대한 뜻의 正答을 指摘한 高校生은 65.4퍼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 이처럼 全般的으로 相當數의 男女學生들이 生殖生理에 대한 基本的인 知識水準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한편 조정숙의 研究에서 高校生들은 테이트, 키스 等과 같은 内容에 대해서는 80퍼센트 이상이 아주 잘 안다고 응답한데 反해 性行爲, 自慰行爲, 夢精, 嫦娠에서 出產까지의 過程, 避妊方法, 性病 等에 대해서는 각각 57.4퍼센트, 46.8퍼센트, 81.6퍼센트, 84퍼센트, 90.7퍼센트, 87.2퍼센트가 모른다고 應答하여 學生들의 性에 대한 知識이 크게 不足함을 알 수 있다(6).

未婚勤勞女性의 경우 洪文植等의 研究(10)에서 應答者

表 3. 남여 생식생리용어에 대한 선다형 설문정답비율

용 어	남 자	여 자	계
<u>중학생</u>			
수정	58.1	61.1	59.6
월경	44.1	90.5	66.7
고환	28.5	10.1	19.5
<u>고교생</u>			
배란	29.2	49.2	39.0
난관	13.8	17.6	15.7
월경	34.8	55.5	45.1
고환	69.6	33.5	51.9

자료 :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한국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연구(I) - 성에 관한 중고생, 부모, 교사들의 지식 및 태도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가 스스로 이름을 쓸 수 있었던 避姪方法은 먹는피임약이 全體 應答者의 42.5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콘돔(37.5퍼센트), 殺精劑(25.1퍼센트), 月經周期法(23.1퍼센트), 子宮內裝置(14.9퍼센트), 卵管手術(13.9퍼센트), 精管手術(13.7퍼센트) 순이다. 그러나 避姪方法의 使用法에 대해서는 18퍼센트가 먹는피임약, 16퍼센트가 콘돔, 12.6퍼센트가 월경주기법을 있다고 했다. 그외에 殺精劑, 精管手術, 卵管手術, 子宮內裝置, 질외사정법 等의 避姪方法에 대해서는 極히 少數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妊娠과 관련된 주요내용에 대한 知識으로서 妊娠이 되면 월경이 멈춘다는 事實을 알고 있는 未婚勤勞女性은 94.3퍼센트인바 이는 앞에서 본 中學生의 경우에서 41퍼센트 밖에 알지 못하는 것과 比較할 때 현저히 높다. 그러나 월경기간 중에는 性關係를 가져도 妊娠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女性은 67.5퍼센트에 不過하다. 學生이나 未婚勤勞女性이나 모두가 具體的인 性知識에 있어서 그 水準이 낮게 評價된다.

2. 性에 대한 態度

우리나라 中學生의 경우 婚前 性行爲에 許容의인 態度를 보인 것은 男學生 15.8퍼센트, 女學生 5.8퍼센트였다.

高校生의 경우는 그 許容率이 中學生보다 높아 男學生 37.7퍼센트, 여학생 8.3퍼센트이다. 中高生 共히 男女間의 許容比率은 큰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中學生은 男性 28.7퍼센트, 여성 53퍼센트가 「婚前 性行爲」라는 用語조차 잘모르고 있었지만 高校生은 이 用語를 모르는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結婚을 約束한 사이라면 婚前性交

를 許容할 수 있다는 比率이 43.2퍼센트로 높아지고 특히 남학생의 60.1퍼센트가 이를 許容할 수 있다는 態度였다. 그러나 婚前 性關係가 바람직하다는 積極的인 態度는 男學生의 0.8퍼센트 뿐이고 女學生은 한명도 없다. 이와 같은 結果에서 高校生들의 婚前性交에 대한 態度는 結婚을 約束한 사이에서 어느 程度 許容될 수 있다고 보지만 婚前性交는 決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共通의인 것임을 알 수 있다(4).

未婚勤勞女性의 경우 婚前性交는 57.6퍼센트가 理由如何를 不問하고 절대로 許容할 수 없다고 했으며 16.9퍼센트가 結婚約束을前提로 許容될 수 있다고 했다(10).

이러한 婚前 性行爲에 대한 態度는 年齡에 따라서 差異가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保守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教育水準도 그들의 婚前 性行爲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婚前 性行爲를 절대로 容納할 수 없다는 態度가 高校까지는 學力增加에 比例的으로 增加하는 樣相을 나타내지만 大學校以上에서는 그러한 態度가 매우 낮은 水準으로 減少한다. 即 國民學校 水準은 愛情만 있으면 상관 없다는 自由主義的 思考方式이 比率의 높게 나타나다가 高校까지는 점차로 절대 許容되지 않는 保守的인 쪽으로 옮겨가며 大學以上이 되면 그 中間形態이고 結婚이 約束되었으면 편찮다는 쪽으로 比率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婚前 純潔에 대한 態度는 51.3퍼센트만이 男女 共히 純潔해야 한다고 했고 16.1퍼센트가 男子는 純潔하지 않더라도 女子는 반드시 純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무려 30.4퍼센트는 요즘세상에 純潔을 願하는 것은 낡은 思考

方式이라고 생각하고 있다(10).

自慰行為에 대한 中學生의 許容比率도 서로 다르다. 中學生의 경우 45.8퍼센트는 自慰行為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高校生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잘 알고 있다. 自慰行為의 許容率은 中高生間에 현저한 差가 있다 (中 : 15.3퍼센트, 高 : 66.3퍼센트). 또한 男女間 差異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男中 : 24.3퍼센트, 女中 : 5.9퍼센트, 男高 : 87퍼센트, 女高 : 42.9퍼센트). 이러한 自慰行為는 性的인力量과感情을 經驗하고 發散하는 目的으로 行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性的衝動을 統制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肯定的인 側面과 自慰行為의 自責意識 및 健康上 害로 올 것으로 믿고 있는 否定的인 側面이 있으므로 自慰行為에 대한 態度는 곧 그 行為의 肯定的 與否와直接의 인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3. 性에 관한 經驗

直接 또는 間接의 性關聯行為인 異性交際, 自慰行為, 키스, 性交, 避妊, 嫣娠, 人工流產, 出產 等에 관한 青少年의 經驗은 다음과 같다.

가. 異性交際

1970년의 全國 77個 中高校學生 4,116名을 對象으로 한 강준상의 研究(1)에서는 男 54.2퍼센트, 女 43.6퍼센트, 1975年 全國 빠스 안내원 7,288名에 대한 이병태의 연구(7)는 45.9퍼센트, 同年 서울시내 女學生 603名에 대한 구본석의 연구(2)는 43퍼센트, 1978년 高校生 1,052名을 대상으로 한 김선희의 연구(3)는 43퍼센트가 각각 異性交際를 經驗한 것으로 나타나 1970年代에는 大體로 青少年의 異性交際 經驗者가 半數에도 미치지 못하였지만 1981년 조정숙(6)의 高校生 1,210名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들의 異性交際 經驗率이 男子 67.7퍼센트, 女子 74퍼센트, 1984년의 未婚勤勞女性 918名에 대한 조사(10)에서는 82.8퍼센트가 異性交際를 經驗한 것으로 나타나 經驗率의 현저한 上昇을 알 수 있다. 또한 70年代初에는 女性보다 男性의 異性交際 經驗率이 높았던데 反해 1980年代에는 오히려 逆轉하여 女性率이 높다. 女性들의 活動이 消極的이고 權益이 위축되었던 保守的 社會文化 環境으로부터 近代化 過程으로 移行됨에 따라 女權伸張과 더불어 女性들의 積極的인 性向이 強해졌기 때문일 것이다(5).

이처럼 青少年들의 異性交際는 점차 普遍化 되어가는 現實을 감안할 때 父母의 지나친 監視나 無條件 禁止시키려는 姿勢보다는 異性間에 健全한 對話를 自然스럽게

나눌 수 있는 機會를 주선해주고 指導해 주는 積極的努力이 要求되고 있다.

나. 自衛行為

12~21歲의 青少年學生 3,269名을 對象으로 한 이수일의 연구에 따르면 男子 49.5퍼센트, 女子 21.5퍼센트가 自衛行為를 經驗하였다(9). 또 하나의 研究結果에는 1,263名의 青少年 가운데 76.2퍼센트가 16세까지는 自衛行為를 經驗하였고 最初의 自衛行為 經驗時 平均年齡은 男子 15歲, 女子 15.3歲였다(13).

다. 키스

김한경 등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5퍼센트, 고교생의 17.3퍼센트가 키스나 포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男女間의 經驗率은 현저한 差異가 있어 中學生은 男子 7.6퍼센트, 女子 2.2퍼센트, 高校生은 男子 22.9퍼센트, 女子 11.6퍼센트이다. 그들의 키스나 포옹에 대한 許容的

표 4. 키스경험자의 첫 키스 상대자와의 그 당시 관계

관 계	키스경험자 수	비율 (%)
서로 좋아하는 사이	263	50.3
그냥 남자친구	114	21.8
장차 결혼하게 될 상대자	78	14.9
직장동료	15	2.9
직장상사	15	2.9
친 친	9	1.7
전혀 모르는 사람	16	3.1
기 타	13	2.5
전 채	523	100.0

표 5. 키스경험자의 첫 키스경험 장소

장 소	키스경험자 수	비율 (%)
야 외	242	46.9
상대방거처	120	23.3
여 관	78	15.1
본인 거처	47	9.1
기 타	29	5.6
전 채	516*	100.0

*키스경험자 523명중 무응답자 7명은 제외됨

*“미혼여성의 성형태에 관한연구조사”는 홍문식 등의 미혼근로 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와 동일한 화제로서 행위 부문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분석제시되는 것임.

態度를 갖는 比率이 中學生 35.4퍼센트와 高校生 56.5퍼센트에 비해 經驗率은 낮은 편이다(4)

未婚勤勞女性의 性行爲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에 의하면 異性과의 키스 경험율은 57퍼센트로서 中高生에 비해 현저히 높다. 16세~18세까지의 연령층, 즉 高校生의 연령 층에 해당되는 근로여성들만의 경험율도 女學生의 11.6퍼센트보다는 월등히 높다. 이들의 첫번째 키스 상대자와의 당시 관계 및 장소는 다음 表4 및 表5와 같다. 주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 그냥 친구사이, 결혼상대자등이 대부분이고 장소는 野外나 相對方의 居處 또는 旅館 等이다.

라. 性交

우리나라 青少年들의 性交 經驗에 관한 調查研究 資料는 高校生을 對象으로 한 學位論文이 大部分이다. 이들은 서로의 調查方法論上 差異로 나타난 結果數值만을 가지 고 그 實相을 比較 評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性交에 관한 資料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에서 實施한 中學生에 관한 調查(4)와 未婚勤勞女性에 관한 調查資料(10)을 토대로 檢討코자 한다.

靑少年 學生들의 性行爲 經驗은 中學生 0.8퍼센트 高校生 7.3퍼센트이고 性別로는 男中生 1.4퍼센트, 男高生 11.7퍼센트인데 비해 女中生과 女高生은 각각 0.2퍼센트와 2.8퍼센트로서 女學生보다 男學生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들 性交經驗者中 男學生의 88.8퍼센트가 15~19세에 첫 性交經驗을 했으나 女學生은 15세 미만에서 46.6퍼센트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問題가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性經驗場所는 野外가 31.7퍼센트인데 女學生의 경우는 相對方 및 自己집이 59.8퍼센트이다. 性交對象은 男學生의 72.3퍼센트가 異性親舊였으나 女學生의 경우는 異性親舊나 愛人은 39.8퍼센트에 不過했다.

한편 性經驗者의 家庭背景에서 男學生은 아버지의 學歷이 낮을수록, 女學生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의 學歷이 國卒 以下인 경우에 性交 經驗率이 높았고 男女共히 어머니가 안계신 경우에도 그 比率이 높았다(4)

이러한 青少年 學生들의 性交經驗率은 泰國의 1982年 調査資料의 男學生 21.4퍼센트와 女學生 21.2퍼센트, 그리고 1985年度의 男學生 34.7퍼센트에 비하면 훨씬 낮다. 특히 女學生은 比較가 되지 않는다(14). 그러나 文化的經濟的 背景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自由中國의 경우는 1983年 高校生 및 大學生에 대한 全國的 調査資料에서 男學生 5.6퍼센트와 女學生 1퍼센트만이 性交經驗을 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水準이다(11). 男女間의 경험이 泰國과 달리 女性쪽이 현저히 낮아 우리나라와 같은 類型이다.

우리나라의 未婚勤勞女性의 경우는 學生들보다 性交經驗率이 높다(10).

即 37.8퍼센트의 性交經驗이 나타났고 高等學生年齡層인 16~18세의 勤勞女性도 25.8퍼센트가 경헤했다.

첫번째 性交相對者の 當時 關係는 主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45.1퍼센트), 결혼 상대자(21.5퍼센트), 그냥 男子親舊(14.2퍼센트) 등이고 그외에 직장동료, 상사, 친척, 전혀 모르는 사람등이 약간씩이다. 또한 이들 相對者の 62.4퍼센트는 첫번째 키스를 경험한 相對者와 同一한 사람이었다.

한편 첫번째 性交를 하게된 狀況은 다음 表6에서와 같이 주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이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거나, 안된다로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強要와 自身의 好奇心으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거절할 餘裕도 없이 우발적 이었다는 것이다.

性交 經驗者的 첫번째 經驗以後 다시 經驗한 實態와

表 6. 성교경험자의 첫 성교관계를 갖게 된 상황

상황	성경험자수	비율 (%)
안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의 강경한 요구와 자신의 호기심으로	148	43.3
거절하거나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우발적으로	93	27.2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으므로 자연스럽게	57	16.7
면식자로부터 강간당함	31	9.1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함	10	2.9
기타	3	0.9
계	342*	100.0

*무응답자 4명이 제외됨

表 7. 성교 재경험 여부 및 재경험 상대자

재경험 여부 및 상대자	응답자수	비율(%)
재경험함	263	76.5
첫경험 상대자와	151	43.9
첫경험 상대자 아닌 사람과	79	23.0
첫경험 상대자 및 다른사람과	33	9.6
재경험 없음	81	23.5
전체	344*	100.0

*무응답자 2명이 제외됨

再經驗相對者에 관한 現況은 다음 表7과 같다. 43.9퍼센트가 첫번째 성교상대자와同一人이었고 첫번째 相對者와 다른 경우는 23퍼센트, 첫 相對者 또는 다른사람과 再校의 經驗을 가진 사람은 9.6퍼센트이다. 그러나 23.5퍼센트는 첫 性交經驗 以後에 再校는 없었으며 性交經驗者의 4.6.7퍼센트는 現在에도 性交相對者가 있다고 했다.

只今까지의 實態에서 일반적으로 青少年들의 性交經驗은 스스로願해서라기 보다는 첫번째 키스를 경험한 相對者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未婚勤勞女性의 %이상이 再交經驗을 했으며 그들의 半數에 가까운 女性은 現在도 性交相對者를 保有한채 관계를維持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하지 않고 우발적인 性交라 할지라도 그 脱線은 한번으로 끝나지 못한채 反復된다는 事實에留意해야 할 것이다.

마.避姪

性交를 經驗한 學生들의 避姪行態는 그 當當時에 避姪方法을 서로 的논해본 學生이 男子 19.5퍼센트, 女子 14.5퍼센트였지만 實際로 避姪을 實踐했던 學生은 男子 39.1퍼센트, 女子 18.9퍼센트로 男學生들의 避姪實踐率이 갑절 높다. 使用方法은 主로 콘돔(51.9퍼센트)과 먹는 피임약(18.7퍼센트)이었다. 피임을 하지 않은 學生들의 理由는 大部分 時間的 餘裕가 없거나(29.2퍼센트) 피임약제기구를 求할 수가 없거나(25.2퍼센트) 피임방법을 몰랐거나(24퍼센트)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15.5퍼센트) 等이었다. 特히 女性은 만약의 경우에 對備해서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實踐의 必要性에 대한 充分한認識이 있어야 할 것이다(4).

未婚勤勞女性의 경우 性交經驗者 346명의 避姪實踐經驗率은 45.1퍼센트(156명)이며 이들의 避姪方法別 使用現況은 다음 表8과 같이 주로 먹는피임약, 콘돔, 月經周期法, 腹外射精 等이다.

表 8. 성경험자 중 피임 실천 경험자의 피임방법별 사용

피임방법	사용율(%)
먹는피임약	29.5
콘돔	37.2
살정제	13.5
월경주기법	51.3
질의사정법	26.9
자궁내장치	0.6
정관수술	1.3
세척법	5.1

월경주기법을 많이 利用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들 中 상당수가 常習的인 性交關係를 維持하고 있다는 뜻이다.

避姪을 하지 않은 216명의 非實踐 理由는 性關係가豫測없이 이루어졌다(69.9퍼센트)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피임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13.9퍼센트)거나 強姦(10.7퍼센트)等의 順이다.

性交經驗者 346名 가운데 嫗娠經驗者는 102名으로 29.5퍼센트이고 전체 조사대상 918名에 대한 比率은 11.1퍼센트이다. 李時伯 等의 1976年度 全國出產力調查資料分析結果에서 이미 15~49세 既婚女性의 14.4퍼센트가 婚前妊娠을 경험했고 이러한 경향을은 젊은층일수록 높아져서 1974~1976年 사이에 결혼한 婦人은 ¼이 넘는 26퍼센트가 婚前에 嫗娠을 했다는 事實로 보아 未婚勤勞女性의 11퍼센트 避姪經驗率은 능히 있을 수 있으리라 믿어진다(8).

妊娠事實을 認知하게된 경위는 半數以上(51.5퍼센트)이 病院 診察을 받고서였고 나머지는 스스로 確認하게 되었다고 한다. 嫗娠에 관한 理解가 크게 不足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임신된 사실을 알고난 후에는 대부분이 누구와 상의를 했고 그 對象은 大部分이 嫗娠시킨 當事者(52.5퍼센트), 女子親舊(18.8퍼센트), 家族(11.9퍼센트)이었고 8.9퍼센트는 아무와도 相議하지 않았다.

避姪經驗女性들의 첫 嫗娠 結果는 102名中 98名(96.1퍼센트)이 人工流產으로, 2名(2퍼센트)이 自然流產으로 각各 終結되었고 한명은 현재 嫗娠中이며 나머지 한명(1퍼센트)만이 正常出產으로 애기는 孤兒院에 보냈다.

人工妊娠中絕을 세번씩 經驗한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회수별로 分類해 본 結果는 다음 表9와 같고, 첫번

表 9. 전체조사 대상자 및 성경험자별 인공임신 충절 경험여부 및 회수 비율

인공임신중절경험 여부 및 회수	조사대상자수	비율(%)
<u>전체조사대상자</u>		
인공임신중절유경험	97	10.6
1회	70	7.6
2회	17	1.9
3회	8	0.9
무응답	2	0.2
무경험	821	89.4
계	918	100.0
<u>성경험자</u>		
인공임신중절유경험	97	28.0
1회	70	20.2
2회	17	4.9
3회	8	2.3
무응답	2	0.6
무경험	249	72.0
계	346	100.0

表 10. 인공임신중절자의 첫 임신중절시 임신기간

임신중절시임신경과기간	인공임신중절 경험자수	비율(%)
3개월미만	39	40.6
3개월	30	31.3
4개월	10	10.4
5개월	1	1.0
6개월	2	2.1
7개월	6	6.3
잘 모르겠다	8	8.3
전체	96*	100.0

*무응답자 6명이 제외됨

제 中絕時의 妊娠個月數는 表10과 같다.

人工妊娠中絕의 重複經驗이나 中絕時期가 너무 늦은 경우 등 中絕은 不可避하나 健康上의 위해에 대한豫防을 위해서도 性教育과 더불어 家族計劃教育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IV. 結論

經濟開發, 產業化, 都市化, 所得增大 等 일련의 社會

經濟的變化는 意識의 急速한 西歐化를 促進하고 同時に 我們의 傳統的 性모랄을 汚損 내지 파괴시켜 既成世代와 젊은 世代間의 性의 價值體制上 갈등과 시련을 加重시키고 있다. 性에 관한 한 비록 그것이 正當하고 當然한 것일지라도 이야기 자체가 수치롭고 숨기려고만 했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 社會規範이었다. 그러나 西歐式 性自由化 물결에 밀려 我們의 性文化는 보다開放的인 方向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必然의 으로 性享樂風潮와 더불어 青少年들의 性非行 및 脱線을 촉진하게 된다. 결국 青少年의 婚前 性交, 妊娠, 人工流產, 나아가 出產에 의한 未婚母와 기아의 增加 等 심각한 社會問題를 加重시키기 마련이다.

青少年의 精神的, 肉體的, 發育은 早熟하는데 反해 結婚年齡은 上昇하므로 婚前 性問題에 노출될 機會는 더욱增加되고 亨樂風潮속의 各種 媒體 및 情報文化의 영향으로 無分別한 性的 刺戟은 痛苦less의 性의 價值判斷을 混亂시켜 青少年 性問題의 심각성은 날로 더해 왔다. 우리는 이제 國家的으로나 社會的으로 未婚青少年들의 性實態에 관한 實相을 깊이 파헤치고 論議하며 그 對應策을 강구하는데 果敢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當面問題에 대한 對應策으로서 性education, 社會的 環境改善 및 公共서비스擴充 等을 다음과 같이 提示코자 한다.

1. 性教育 強化

性問題의 對策을 위해 性education은 가장 基本的인 手段이 되고 있다. 只今까지의 各種 青少年 性問題와 관련된 研究에서 性education의 要求度와 重要性이 누누히 強調된 바 있거니와 本稿에서는 이를 家庭, 學校, 社會 部門으로 나누어 略述코자 한다.

가. 家庭教育

愛情生活의 領域은 배일속에 감춰두는 것을 美德처럼 여기고 家族間의 性education은 父母나 子息이나 서로가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온 傳統的家庭文化는 오랫동안 家庭의 性education 不在로 一貫해 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런 點에서는 먼저 父母에 대한 性education이 우선 要求된다. 父母들에 대한 性education은 父母들의 性education 參與意識을 위한 現實問題의 올바른 理解와 子女教育을 위한 父母로서의 性知識 축적으로 要約될 수 있다. 現實問題의 올바른 理解를 위해서는 子女를 가진 父母는 學校先生님들과의 긴밀한 對話의 機會를 制度의 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方法이 될 수 있다. 또한 婦女會나 班常會를 통한 青少年 性education

問題의 잇슈화도考慮해 볼만 하다. 即 青少年 性問題 實態와 性非行 또는 犯罪 事例 等의 情報를 提供하고 父母의 子女에 대한 役割과 成人們의 青少年에 대한 役割 等을 함께 論議할 機會로 班常會를 活用한다면 家庭에서의 性教育 一般化에 相當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父母로서의 子女에 대한 具體的인 性教育을 위해서는 各者가 性에 대한 올바른 知識을 축적하는데 스스로 努力해야하며 子女에 대한 관심을 學科工夫에 만족시킬 것이 아니고 어릴적부터 身體的情緒의 發達過程에 따라 生活指導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래의 性的 脱線豫防에 대처해야 한다. 特히 父母로서의 신뢰감을 유지케 하고 家庭에서 成人用 雜誌나 비디오 等 외설물을 비치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언젠가는 子女들이 몰래 볼 수 있는 헛점의 機會가 提供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나. 學校教育

成長過程에서 비로소 公式的인 性教育을 받을 수 있는 機會는 學校教育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學校性教育은 極히 단편적이면서 體系化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앞에 記述한 바와 같이 中·高等學生들의 性에 관한 一般的인 知識水準이 낮다는 事實에서도 그間의 學校教育이 滿足스럽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高校生들의 性知識 獲得 經路에 관한 研究들을 보면 대부분이 教師나 父母 兄弟보다는 交友나 大衆媒體를 통해서 性知識을 習得한다(5)는 事實에서 家庭에서와 마찬가지로 學校에서의 性education의 必要性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教師의 %以上이 學校 性education의 不辰理由로 學校制度의 問題, 性education 媒體 및 施設不足 等을 指摘하고 있으므로 이의 時急한 對策이 要求된다(4).

첫째 中高校에서의 性education 프로그램을 開發하여 教科內容을 補強하되 서로 다른 科目에 散發의 으로 提示된 性education 情報를 體系的으로 一元化 하여 學科別로 段階的 學習이 一貫性 있게 될 수 있도록 制度의 改善이 要望된다.

둘째, 各級 學校의 教育施設, 이를테면 性education 視聽覺教室의 設置와 各種器資材의 確保 等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標準化된 教育資料의 普及으로 모든 學校에서 良質의 校育을 實施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物理的 與件을 갖추어도 教師들의 性education 指導 能力이 不足하면 그 實效를 期待하기 어려우므로 特히 中·高等學校에서의 性education 指導는 教科編成 方針과 一致하도록 專門教師를 指定해서 이들에 대한 專門的인 教育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다. 社會教育

未婚勤勞女性의 55.5퍼센트가 事業場에서의 性education을 받은 經驗이 있다고 했고 犯罪방법 등 性關係 知識의 情報源은 女性雜誌(84.1퍼센트), 女子親舊(66.5퍼센트), TV(54.1퍼센트), 學校(49.1퍼센트) 等이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 職場에서의 教育은 겨우 39.7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10). 性과 관련된 知識은 大部分의 勤勞女性들에 의해 共通의 으로 要求되고 있다. 그러나 主된 知識情報源은 大衆媒體라는 事實에서 性에 관한 社會education의 貧困을 变명할 길 없다. 따라서 青少年에 대한 올바른 性指導를 위해 社會education의 制度의 受容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다 具體的으로는 一定 規模以上的 青少年을 履儲하는 모든 事業體 및 公共機關에서는 一定 時間의 定期的 性education 프로그램 覆行을 義務化시키고 中央 關聯機關에서는 專門的인 教育프로그램 및 教育資料의 開發普及과 일선 業體의 教育擔當者에 대한 訓練을 實시토록 制度화해야 한다. 아울러 매스 캠을 통한 性education 프로그램의 개발로 教育放送을 통한健全한 性情報의 普及을 國家의in 次元에서 支援해야 한다.

2. 環境改善

靑少年들의 健全한 方向의 性衝動 解消를 위한 社會의 環境改善의 必要性은 누구나 肢부로 느낄 수 있는 일이다.

靑少年 性問題의 温床이 될 수 있는 음화나 음란비디오 등의 不法的 生產流通을 強力하게 統制하여 우리周邊이 净化되어야 한다. 特히 그러한 외설물이나 淫亂소리를 青少年에게 提供하는 一部 業所, 이를테면 만화가게, 디스코텍 等의 不法的 營業行爲는 根絕시켜야 한다. 그리고 性交를 經驗한 青少年 가운데相當數가 어릴적의 強姦에 의한 경우임을 감안할 때 요즈음에도 빈발하고 있는 性暴行 犯罪가 칠저히 團束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近親相姦의 防止를 위해 近親靑少年 男女間의 은밀한 機會가 될 素地를 마련치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週刊 또는 月刊 雜誌 等이 性情報 提供源으로서 큰 役割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의 大部分은 興味爲主의 煽情의이고 외곡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媒體를 통한 情報內容을 보다 健全하고 教育의인 것으로改善해 나가는 努力이 行政의으로나 社會의으로 모아져야 한다. 그리고 라디오, TV 等, 放送當局도 青少年 性教育에 관심을 더하여 그들의 올바른 指導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公共서비스 擴充

未婚勤勞女性의 大多數가 異性問題 및 性問題 解決을 위한 相談機關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며 그들의 75.6퍼센트는 相談機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고 23.1퍼센트는 없는것보다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相談員이나 相談所는 직장내부보다는 직장밖의 것을 選好한다는 反應이므로 保健醫療機關이나 痘醫

院, 民間團體의 一線組織 等에 相談所를 設置 運營하는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専門的 電話相談 組織도 擴大하여 性問題에 관한 누구나 궁금증 또는 어려운 문제들을 언제라도 손쉽게 相談 가능토록 서비스망을 구축함이 바람직하다. 具體的으로 大韓家族計劃協會에서 그동안 示範的으로 개발 운영해온 性相談電話 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政府次元에서 積極 支援하는 方案도 考慮해 볼만한 것이다.

그外에 부득이한 경우 避姪을 할 수 있도록 指導하고 性脫線과 無知에 의해 不願妊娠이 된 경우를 위한合法的인 人工妊娠中絕의 주선도 可能하도록 制度的裝置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出產의 경우 未婚母 指導管理 및 入養 알선 등 公共 對策이 더욱 根源的으로 福祉次元까지 擴大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강준산, “중·고교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 가족계획, 대한가족계획협회, 1971여름호.
2. 구본석, 이성교제에 관한 조사연구—서울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3. 김선희, 이성문제의 유발요인에 관한 조사연구—충청북도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1978.
4. 김한경, 남정자, 한혜경, 한국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관한 연구(I),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8.
5. 김한경, 남정자, 한국 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문헌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6. 조정숙, 고교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7. 이병태, 자동차 여성근로자연구—안내원실태조사와 분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1975.
8. 이시백, 박병태, 최순, “혼전임신경험부인의 출산력 수준고찰”, 가족계획논집 제5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78.
9. 이수일, 한국청소년의 성의식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78.
10. 홍문식, 서문희, 미혼 근로 여성의 인구 및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4.
11. Cernada, George P. et al, “Implication for Adolescent Sex Education in Taiwan”, Studies in Family Planning, Volume 17, Number 4, Population Council, 1986.
12. Malm, Marguerite and Olis G. Tamison, Adolescence, McGraw-Hill Book Company INC. 1952, pp. 3-4, 12.
13. Moon, Ok-Ryun, An Analysis on Adolescent Fertility Manag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보건학논집 제31호, 1981, pp. 59~66.
14. Porapakkham, Yawarat, Level and Patterns of Adolescent Sexuality, The Case of Thailand, Paper Prepared for the Workshop on Adolescent Sexuality and Fertility in Asia, August 7~14, 1985, Taichung, Taiwan.
15. WHO, “Young Peoples Health-A Challenge for Society”, Report of WHO Study Group on Young People and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5.

(Abstract)

Implication for Korean Adolescent Sexuality

Moon Sik Hong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Rapid socio-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country has brought with it changes in the society's value system. For a traditional society that is increasingly being exposed to modernization but where sex norms are still very restrictive, the adolescent sexual mores takes on added significance. Adolescents are caught between two opposing forces, the changing environment that allows for freer and liberal mores and the traditional society that cannot keep pace with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herefore demands resistance to changes.

This paper focuses on problems of adolescent sexuality in this country and considers the countermeasures for the existing problems.

Amongst the problems are: (a) increasingly younger age of the adolescents who start sexual intercourse (b) non-use of contraception, (c) unwanted pregnancies, (d) increase in the number of induced abortion and (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wanted children and unmarried mothers.

The Korean adolescent's sexual behavior seems to follow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other words, many western modes of life and sexual values seem to have been copied in Korea and yet Korean adolescents lack in their knowledge of sex related matters such as reproductive physiology and contraception.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emale students are reported to have less knowledge on sex than male students according to a 1988 survey by KIPH.

Even among the unmarried female factory workers, only 42.5 percent replied they know of the condom, and 25.1 percent and 23.1 percent said they had knowledge of spermicide and menstrual regulation respectively. However, 14.9 percent and 13.9 percent reported that they had a knowledge of the loop and female sterilization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1984 study by KIPH.

Among the middle school students 0.8 percent said they had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while 7.3 percent of the high school students reported having had sexual intercourse. The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rate among the unmarried female factory workers is 37.8 percent. Among those female factory workers with sexual experience, 46.7 percent had more than one sex partners. Only 39.1 percent of male students and 18.9 percent of female students among those with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have used contraceptives, mostly condoms and oral pills 4 5.1 percent of female factory workers with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used contraceptives such as pills, condoms and rhythm methods.

The pregnancy experience rate among the female factory workers who had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is 29.5 percent, which is 11.1 percent among the total respondents. Out of the 102 pregnant female workers, 98 workers(96.1 percent) terminated their pregnancy by induced abortion and 2 workers(2 percent) in natural abortion, while 1 worker(1 percent) was in pregnancy and another 1 worker had normal birth that was subsequently sent to orphanage.

In order to cope with the problem of adolescent sexuality, a drastic and strong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by the government. The most effective countermeasure to the adolescent sexual problems appears to be education. The sex and population education in the school is very much in need. In addition, sex education program through mass media and at the job site should be promoted for a healthy development of adolescents' sexual behavior. Also, the existing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which has focused on the married couples, should be extended to the unmarried people in its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gram.